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6 주차 (12:1~19)

(2015년 7월 19일 - 2015년 7월 25일)

(제3권 26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7 월 1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2:1~11)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가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체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πρὸ ἑξήμερῶν τοῦ πάσχα ἦλθεν εἰς Βηθανίαν.)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Λάζαρος,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Ἰησοῦς.)
- (2절)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ἐποίησαν οὖν αὐτῷ δεῖπνον ἐκεῖ.)
마르다는 일을 도왔습니다 (καὶ ἡ Μάρθα διηκόνει.)
그러나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δὲ Λάζαρος εἷς ἦν ἐκ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σὺν αὐτῷ.)
- (3절) 그러자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λαβοῦσα λίτρον μύρου νάρδου πιστικῆς πολυτίμου ἤλε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τοῦ Ἰησοῦ)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καὶ ἐξέμαξεν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그리고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에 의해 그집이 채워졌습니다
(ἡ δὲ οἰκία ἐπληρώθη ἐκ τῆς ὀσμῆς τοῦ μύρου.)
- (4절) 그러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λέγει δὲ Ἰούδας ὁ Ἰσκαριώτη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그는 곧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ὁ μέλλων αὐτὸν παραδιδόναι.)
- (5절)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 (διὰ τί τοῦτο τὸ μύρον οὐκ ἐπράθη τρ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καὶ ἐδόθη πτωχοῖς;)
- (6절)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εἶπεν δὲ τοῦτο οὐχ ὅτι περὶ τῶν πτωχῶν ἔμελεν αὐτῷ.)
오히려 그는 도적이었고 돈궤를 맡았을 때 그것을 훔쳤습니다
(ἀλλ' ὅτι κλέπτης ἦν κα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ἔχων τὰ βαλλόμενα ἐβάσταζεν.)
- (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ἄφες αὐτήν.)
그녀가 그것을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다
(ἵνα εἰς τὴν ἡμέραν τοῦ ἐνταφιασμοῦ μου τηρήσῃ αὐτό·)
- (8절)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τοὺς πτωχοὺς γὰρ πάντοτε ἔχετε μεθ' ἑαυτῶν.)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ἐμὲ δὲ οὐ πάντοτε ἔχετε.)
- (9절) 유대인들 중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Ἔγνων οὖν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ὅτι ἐκεῖ ἐστίν)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καὶ ἦλθον οὐ διὰ τὸν Ἰησοῦν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ἴδωσιν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 (1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ἐβουλεύσαντο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ἀποκτείνωσιν.)
- (11절) 그(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οὶ δι' αὐτὸν ὑπήγ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αὶ ἐπίστευον εἰς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 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에 의해 그집이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앞서 삼남매 중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만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지도,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도 않았습니. 마르다는 밖에서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 바쁘고 나사로는 마치 손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 그 자리에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타납니. 그리고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누가 보아도 돌출 행동에 가까운 것이었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

요한은 향유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 먼저 그 향유는 순수한 ‘나드’ 향이었다고 말합니. ‘나드’에서 추출한 ‘향이 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 라이프 성경사전(생명의 말씀사 발간)에는 나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

“산스크리트어로 ‘향기를 발하다’는 뜻을 가진 ‘나라다’의 헬라이어 음역이다.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이 좋은 다년생 식물 ‘나도스타키 자타만시’(감송향, *Nardostachys jatamansi*)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고급 향유(香油). 고대에는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 사용되었고(아 1:12), 성경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아 4:13-14). 신약에서는 예수님 공생애 때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마리아)이 이 향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헌신

의 모범을 소개하기도 한다(막 14:3; 요 12:3).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A.D. 23-79년)는 나드 풀뿌리 453g이 100 데나리온(1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거래되었다고 말하며, 당시 문헌에는 500g이 300 데나리온으로 기록된 곳도 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나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나도’(아 4:14), ‘나도풀’(아 4:13)로도 표현되며, 신약에서는 ‘나드’로 표기된다(막 14:3; 요 12:3).”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귀하고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씻었을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말하듯이 단지 “헌신의 모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물론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행동이었으며,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온 ‘종으로 오신 인자’라는 이미지는 단번에 사라지고 맙니다. 노동자들의 약 1 년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자신에게 부여버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난을 한 가룟유다를 책망하고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으니 말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매우 깊은 의미를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좀더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다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요한복음은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누가복음 7장에도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유월절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지는 알수가 없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마태복음의 기록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6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마 26:6-13).

앞서 배웠듯이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비통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통한 자란 고난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비통한 자들을 여덟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말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향유는 그 당시 매우 귀하고, 비싸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단순히 개인적인 헌신, 겸손 등을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마리아를 위해서였습니다. 수 많은 마리아들,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의 진액을 다 흘리셨고, 그것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성도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인류 역사에 단 한번 밖에 일어날 수 없는 위대한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면 안되는 가슴아픈 현실을 이 여인을 통해 표현한 것이지요. 어찌면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의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비통함이란 예수님을 사지로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고 나 자신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그분의 장례식을 내가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을 못박았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으며 내가 그분을 묻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그토록 애통해 하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이 유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온 집을 채운 향유 냄새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11)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가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πρὸ ἑξήμερῶν τοῦ πάσχα ἦλθεν εἰς Βηθανίαν.)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Λάζαρος,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Ἰησοῦς.)
- (2절)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ἐποίησαν οὖν αὐτῷ δεῖπνον ἐκεῖ.)
마르다는 일을 도왔습니다 (καὶ ἡ Μάρθα διηκόνει.)
그러나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δὲ Λάζαρος εἷς ἦν ἐκ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σὺν αὐτῷ.)
- (3절) 그러자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λαβοῦσα λίτρον μύρου νάρδου πιστικῆς πολυτίμου ἤλε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τοῦ Ἰησοῦ)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καὶ ἐξέμαξεν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그리고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에 의해 그집이 채워졌습니다
(ἡ δὲ οἰκία ἐπληρώθη ἐκ τῆς ὀσμῆς τοῦ μύρου.)
- (4절) 그러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λέγει δὲ Ἰούδας ὁ Ἰσκαριώτη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그는 곧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ὁ μέλλων αὐτὸν παραδιδόναι.)
- (5절)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 (διὰ τί τοῦτο τὸ μύρον οὐκ ἐπράθη τρ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καὶ ἐδόθη πτωχοῖς;)
- (6절)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εἶπεν δὲ τοῦτο οὐχ ὅτι περὶ τῶν πτωχῶν ἔμελεν αὐτῷ.)
오히려 그는 도적이었고 돈궤를 맡았을 때 그것을 훔쳤습니다
(ἀλλ' ὅτι κλέπτης ἦν κα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ἔχων τὰ βαλλόμενα ἐβάσταζεν.)
- (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ἄφες αὐτήν.)
그녀가 그것을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다
(ἵνα εἰς τὴν ἡμέραν τοῦ ἐνταφιασμοῦ μου τηρήσῃ αὐτό·)
- (8절)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τοὺς πτωχοὺς γὰρ πάντοτε ἔχετε μεθ' ἑαυτῶν.)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ἐμὲ δὲ οὐ πάντοτε ἔχετε.)
- (9절) 유대인들 중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Ἔγνων οὖν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ὅτι ἐκεῖ ἐστίν)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καὶ ἦλθον οὐ διὰ τὸν Ἰησοῦν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ἴδωσιν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 (1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ἐβουλεύσαντο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ἀποκτείνωσιν.)
- (11절) 그(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οὶ δι' αὐτὸν ὑπήγ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αὶ ἐπίστευον εἰς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말씀이해하기

지난 번에 이어 3절을 좀 더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순수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자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이 온 집을 채웠습니다. 그 향유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한은 이 에피소드를 설명하면서 공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 향이 온 집을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은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인 소위 취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흔히들 그 사건은 예수님이 겸손과 종도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 말하지만 주의 깊게 잘 읽어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죄 용서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씻어 준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더러워진 상대방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씻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더러움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게 해달라고 하자 이미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는 바로 자신의 죽음, 즉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은 서로 죄짓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죄지은 자를 받아들이고 책망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자 향유로부터 나온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언뜻 읽기에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집이라고 표현된 ‘오이키아’(oikía)는 그저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가 함께 있는 특별한 곳으로서의 집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사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그들만의 교회당을 지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어 놓은 공회에 모이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일반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던 곳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향유로부터 나온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차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요한은 이 문장에서 ‘오이키아’(집)를 주어로 하고 동사를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이 향기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쓴 것이지요. 이처럼 요한이 ‘집’을 주어로 써서 강조한 이유는 아마도 집이 의미하는 교회 전체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그 향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은혜와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음을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지요.

“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¹⁵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¹⁶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¹⁷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후 2:14-17).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단지 우리의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냄새란 현재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는 그냥 세상에 돌아 다닌다고 풍겨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로 떠든다고 풍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냄새는 그리스도인다움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박히는 경험, 즉 죽음의 경험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마리아로 인해 향기로 가득 채워진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공관복음을 참고로 한다면, 이 집은 아마도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을 겁니다. 문둥병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여겼고 상종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취급당해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행 24:5 참조). 따라서 요한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 만찬을 베풀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고, 그 집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14:3 참조). 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옥합을 깨는 것의 참된 의미는 바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옥합은 절대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깨지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겸손하려 해도 오히려 그 겸손하려는 마음 때문에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옥합이 깨지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깨부수실 의도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마치 정금을 만들기 위해 원석을 풀무에 넣고 제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깨어짐을 통해 비로소 우리에게서 향기가 우리나게 됩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 온 교회, 나아가 온 세상으로 퍼져서 마침내는 이 세상 전체를 그 향기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파운드를 가져와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온 집이 그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향기가 흘러 나오게 되어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나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가득 퍼지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찌하여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 하였느냐?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11)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 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πρὸ ἕξ ἡμερῶν τοῦ πάσχα ἦλθεν εἰς Βηθανίαν.)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Λάζαρος,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Ἰησοῦς.)
- (2절)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ἐποίησαν οὖν αὐτῷ δεῖπνον ἐκεῖ.)
마르다는 일을 도왔습니다 (καὶ ἡ Μάρθα διηκόνει.)
그러나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δὲ Λάζαρος εἷς ἦν ἐκ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σὺν αὐτῷ.)
- (3절) 그러자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λαβοῦσα λίτρον μύρου νάρδου πιστικῆς πολυτίμου ἤλε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τοῦ Ἰησοῦ)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καὶ ἐξέμαξεν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그리고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에 의해 그집이 채워졌습니다
(ἡ δὲ οἰκία ἐπληρώθη ἐκ τῆς ὀσμῆς τοῦ μύρου.)
- (4절) 그러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λέγει δὲ Ἰούδας ὁ Ἰσκαριώτη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그는 곧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ὁ μέλλον αὐτὸν παραδιδόναι.)
- (5절)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 (διὰ τί τοῦτο τὸ μύρον οὐκ ἐπράθη τρ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καὶ ἐδόθη πτωχοῖς;)
- (6절)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εἶπεν δὲ τοῦτο οὐχ ὅτι περὶ τῶν πτωχῶν ἔμελεν αὐτῷ.)
오히려 그는 도적이었고 돈궤를 맡았을 때 그것을 훔쳤습니다
(ἀλλ' ὅτι κλέπτης ἦν κα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ἔχων τὰ βαλλόμενα ἐβάσταζεν.)
- (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ἄφες αὐτήν.)
그녀가 그것을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다
(ἵνα εἰς τὴν ἡμέραν τοῦ ἐνταφιασμοῦ μου τηρήσῃ αὐτό·)
- (8절)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τοὺς πτωχοὺς γὰρ πάντοτε ἔχετε μεθ' ἑαυτῶν.)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ἐμὲ δὲ οὐ πάντοτε ἔχετε.)
- (9절) 유대인들 중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Ἔγνων οὖν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ὅτι ἐκεῖ ἐστίν)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καὶ ἦλθον οὐ διὰ τὸν Ἰησοῦν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ἴδωσιν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 (1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ἐβουλεύσαντο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ἀποκτείνωσιν.)
- (11절) 그(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οὶ δι' αὐτὸν ὑπήγ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αὶ ἐπίστευον εἰς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말씀이해하기

46 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자 제자들 중 가롯유다가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고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요한은 4 절에서 가롯유다에 대해 곧 예수를 배반할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 (παραδίδομι)는 ‘넘겨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던 것을 남에게 넘겨 주는 것, 또는 잡아서 건네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넘겨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가롯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모두 알고 있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고는 나가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목함으로써 예수님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가롯유다를 악의 화신, 사단의 하수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단순히 선악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무작정 그를 칭송하거나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롯유다의 배반이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굳이 가롯유다를 배반자로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런 방법

으로 잡히셔야 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하셨는지 한 번쯤 의문을 품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13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가롯유다는 마리아를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은 ‘그것을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진작에 나누어 주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왜 그것을 갖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잘 살펴 보면 모두 수동태가 쓰여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이미 삼백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에 팔렸어야 했고 (수동태) 그것을 판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수동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것을 마리아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가롯유다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장을 문법대로 해석한다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벌써 팔았어야 했거나 혹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가롯유다만 홀로 정의로운 사람처럼 나서서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공관복음에 의하면 가롯유다가 아니라 복수의 제자들 또는 복수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나무라는 광경이 나옵니다.

“6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 26:6-9).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3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막 14:2-5).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복을 포함하여 공관복음 모두 이미 과거에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여인은 진작에 그 향유를 이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나 가롯유다는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마리아가 한 일이 옳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막 10:21).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 ‘프토코스’ (πτωχός)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능력이 되지 않아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쓰셨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의 영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기 같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뭔가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물론 제자들은 부자 청

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적어도 자신들이 속한 예수 공동체에서는 세상 부자들이나 누리는 호사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런 것은 진작에 팔아서 프토코스들(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온 집에 향기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당신에게 있어 향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주위에 ‘가난한 자’ 즉, 프토코스들은 누구인가요? 혹은 당신이 그 가난한 자는 아닌지요?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친절하게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적이었고, 돈계를 맡았을 때 그것을 훔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그 향유를 팔면 들어올 엄청난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가 한 말은 그의 실제 행동이나 속마음으로 볼 때 전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를 위하고 인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팔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그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진을 찍어서 실상은 남들에게 그런 자기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찌면 그런 모습이 가룟유다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당신은 어떤가요? 자신의 행위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장례식날까지 지킬 것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11)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 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πρὸ ἕξ ἡμερῶν τοῦ πάσχα ἦλθεν εἰς Βηθανίαν.)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Λάζαρος, ὃν ἤγαγεν ἐκ νεκρῶν Ἰησοῦς.)
- (2절)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ἐποίησαν οὖν αὐτῷ δεῖπνον ἐκεῖ.)
마르다는 일을 도왔습니다 (καὶ ἡ Μάρθα διηκόνει.)
그러나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δὲ Λάζαρος εἷς ἦν ἐκ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σὺν αὐτῷ.)
- (3절) 그러자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λαβοῦσα λίτρον μύρου νάρδου πιστικῆς πολυτίμου ἤλε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τοῦ Ἰησοῦ)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καὶ ἐξέμαξεν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그리고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에 의해 그집이 채워졌습니다
(ἡ δὲ οἰκία ἐπληρώθη ἐκ τῆς ὀσμῆς τοῦ μύρου.)
- (4절) 그러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λέγει δὲ Ἰούδας ὁ Ἰσκαριώτη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그는 곧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ὁ μέλλον αὐτὸν παραδιδόναι.)
- (5절)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 (διὰ τί τοῦτο τὸ μύρον οὐκ ἐπράθη τρ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καὶ ἐδόθη πτωχοῖς;)
- (6절)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εἶπεν δὲ τοῦτο οὐχ ὅτι περὶ τῶν πτωχῶν ἔμελεν αὐτῷ.)
오히려 그는 도적이었고 돈궤를 맡았을 때 그것을 훔쳤습니다
(ἀλλ' ὅτι κλέπτης ἦν κα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ἔχων τὰ βαλλόμενα ἐβάσταζεν.)
- (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ἄφες αὐτήν.)
그녀가 그것을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다
(ἵνα εἰς τὴν ἡμέραν τοῦ ἐνταφιασμοῦ μου τηρήσῃ αὐτό·)
- (8절)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τοὺς πτωχοὺς γὰρ πάντοτε ἔχετε μεθ' ἑαυτῶν.)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ἐμὲ δὲ οὐ πάντοτε ἔχετε.)
- (9절) 유대인들 중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Ἔγνων οὖν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ὅτι ἐκεῖ ἐστίν)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καὶ ἦλθον οὐ διὰ τὸν Ἰησοῦν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ἴδωσιν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 (1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ἐβουλεύσαντο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ἀποκτείνωσιν.)
- (11절) 그(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οὶ δι' αὐτὸν ὑπέγηγ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αὶ ἐπίστευον εἰς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말씀이해하기

7-8 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를 향해 한 가롯유다의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그것을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롯유다를 향한 말씀과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구별하여 그 의미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한 편으론 가롯유다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고 또 한 편으로는 제자들을 향해 예언하신 것이지요.

먼저, 가롯 유다를 향해서는 마리아가 지금 하고있는 일을 계속 하도록 그냥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로 번역되었는데 정확한 번역은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εἰς τὴν ἡμέραν τοῦ ἐνταφιασμοῦ μου, 에이스 텐 헤메란 토후 엔타피라스모우 모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아마도 가롯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고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니고 있다가 드디어 이날 예수님께 그 향유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한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는 지금 베다니에서 만찬이 열린 그날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아는 이날까지 그 향유를 지니고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시간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장례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당국에 제보했고 체포 현장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예수님이 앞으로 6일 후에 인류의 대속자로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한 자가 되어 비통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그분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것임을 까맣게 모르는 상태이며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리가 없습니다. 서로 아무 것도 모른 채 가룟유다는 그런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6일 후에 일어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 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자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아마도 이 예언의 대상에서 가룟유다는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부자는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부자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로 옷입고, 소망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요하든 않든, 명예가 있든 없든, 많은 지식이 있는 없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와 가난은 흔히들 생각하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 모두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이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교만함, 율법을 충실히 지켜내서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스스로 소금이 되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무력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난인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 드디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겉으로는 콧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거지처럼 서 있는 자신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가 슬픈 노래(애가)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최초 독자들이었던 크리스천 공동체는 분명 ‘가난한 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신음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⁸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⁹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¹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¹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 2:8-11).

요한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 비통의 상징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 준비한 그 향유 사건을 통해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던 걸까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베다니의 한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순전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썼을까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부활을 보는 시각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11)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가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 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Ο οὖν Ἰησοῦς πρὸ ἕξ ἡμερῶν τοῦ πάσχα ἦλθεν εἰς Βηθανίαν.)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Λάζαρος, ὃν ἤγαγεν ἐκ νεκρῶν Ἰησοῦς.)
- (2절)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ἐποίησαν οὖν αὐτῷ δεῖπνον ἐκεῖ.)
마르다는 일을 도왔습니다 (καὶ ἡ Μάρθα διηκόνει.)
그러나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ὁ δὲ Λάζαρος εἷς ἦν ἐκ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σὺν αὐτῷ.)
- (3절) 그러자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로 만든 비싼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λαβοῦσα λίτρον μύρου νάρδου πιστικῆς πολυτίμου ἤλε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τοῦ Ἰησοῦ)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καὶ ἐξέμαξεν ταῖς θριξίν αὐτῆς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그리고 그 향유로부터 나온 향에 의해 그집이 채워졌습니다
(ἡ δὲ οἰκία ἐπληρώθη ἐκ τῆς ὀσμῆς τοῦ μύρου.)
- (4절) 그러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λέγει δὲ Ἰούδας ὁ Ἰσκαριώτη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그는 곧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ὁ μέλλον αὐτὸν παραδιδόναι.)
- (5절) 왜 그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지 않았으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 (διὰ τί τοῦτο τὸ μύρον οὐκ ἐπράθη τρ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καὶ ἐδόθη πτωχοῖς;)
- (6절)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εἶπεν δὲ τοῦτο οὐχ ὅτι περὶ τῶν πτωχῶν ἔμελεν αὐτῷ.)
오히려 그는 도적이었고 돈궤를 맡았을 때 그것을 훔쳤습니다
(ἀλλ' ὅτι κλέπτης ἦν κα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ἔχων τὰ βαλλόμενα ἐβάσταζεν.)
- (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ἄφες αὐτήν.)
그녀가 그것을 나의 장례식 준비일까지 간직한 것이다
(ἵνα εἰς τὴν ἡμέραν τοῦ ἐνταφιασμοῦ μου τηρήσῃ αὐτό·)
- (8절)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τοὺς πτωχοὺς γὰρ πάντοτε ἔχετε μεθ' ἑαυτῶν.)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ἐμὲ δὲ οὐ πάντοτε ἔχετε.)
- (9절) 유대인들 중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Ἔγνων οὖν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ὅτι ἐκεῖ ἐστίν)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καὶ ἦλθον οὐ διὰ τὸν Ἰησοῦν μόνον, ἀλλ'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ἴδωσιν ὃ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 (1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ἐβουλεύσαντο δὲ οἱ ἀρχιερεῖς ἵνα καὶ τὸν Λάζαρον ἀποκτείνωσιν.)
- (11절) 그(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οὶ δι' αὐτὸν ὑπήγ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αὶ ἐπίστευον εἰς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말씀이해하기

9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 중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베다니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다.

요한복음을 읽다보면요한이 매우 독특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거나 진리를 설교하신 이후 반드시 이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거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늘 크게 둘로 나뉘어 집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예수님을 위협 인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공동체에서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는 그룹입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예수님은 그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고 확신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표면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로 몰려 왔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임을 감안하면 이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유월절을 6일가량 남겨 둔 시점이라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속속 예루살렘을 찾아들었기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때 예루살렘에 회자되는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고 이일로 인해 산헤드린 공회까지 긴급 소집되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이었고 또 그 증거가 되는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로 오셨다는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들렸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다니로 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운데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말이지요. 흔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기에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결국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찾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셈이지요.

10-11 절을 읽으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이 대목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선 11 절에서 그 힌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에서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파들이 믿고 있던 신앙에 어떤 위협이 될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 부활을 입증했고,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양 믿었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겨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성전세를 합법적으로 받아 그것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신들의 평안하고 멋진 삶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현 세상에서의 성취에 전념하도록 만들었고 급기야 내세에 대한 믿음은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현 세상이 전부인양 악착같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현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에 도취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몸에 거는 장식품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편, 나사로를 죽이는 일에 바리새인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세보다는 내세를 소망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오히려 나사로가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는 한통속이 되었지만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견해에 따라 입장을 달리 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 것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 절부터 10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²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³바울이 가로되 회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

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⁴결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⁵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⁶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 ⁷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⁸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⁹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¹⁰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갈라 하니라”(행 23:1-10).

이렇게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두 지도자 그룹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는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각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던 유대인들의 율법적 전통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양대 종파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세운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고 인간들이 가르쳐 온 지식이나 신학적 체계가 성경의 진리를 대체한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복음을 전해도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옳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수에 의해 소수가 죽었습니다. 그때 죽음을 당했던 소수는 당연히 진리를 외친 자들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처했던 그들이 그토록 믿고 섬겨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들의 손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죽이는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김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옳은 길, 좁은 길로 걷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호산나!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이튿날 (Τῆ ἐπαύριον)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ὁ ἐλθὼ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ἀκούσαντες ὅτι ἔρχετα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ἔλαβον τὰ βράβια τῶν φοινίκων)
그를 맞기 위해 나가 외쳤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ον εἰς ὑπάντησιν αὐτῷ καὶ ἐκραύγαζον·)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ὡσαννά· εὐλογημένος ὁ ἐρχόμενος ἐν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καὶ] ὁ βασιλεὺς τοῦ Ἰσραήλ.)
- (14절)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εὐρών δὲ ὁ Ἰησοῦς ὄναριον ἐκάθισεν ἐπ' αὐτ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καθὼς ἐστὶν γεγραμμένον·)
- (15절)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아 (μὴ φοβοῦ, θυγάτηρ Σιών·)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ἰδοὺ ὁ βασιλεὺς σου ἔρχεται·)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καθήμενος ἐπὶ πῶλον ὄνου·)
- (16절) 처음에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ταῦτα οὐκ ἔγνωσαν αὐτοῦ οἱ μαθηταὶ τὸ πρῶτον·)
그러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 (ἀλλ' ὅτε ἐδοξάσθη Ἰησοῦς τότε)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ἐμνήσθησαν)
이러한 것들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ὅτι ταῦτα ἦν ἐπ' αὐτῷ γεγραμμένα)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한 것들을 (καὶ ταῦτα ἐποίησαν αὐτῷ·)
- (17절)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증거했습니다 (ἐμαρτύρει οὖν ὁ ὄχλος)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ὁ ὢν μετ' αὐτοῦ ὅτε τὸν Λάζαρον ἐφώνησε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καὶ ἤγειρεν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 (18절) 군중들이 그를 마중나온 것은 그들이 그 이적을 행하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καί]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ὁ ὄχλος, ὅτι ἤκουσαν τοῦτο αὐτὸν πεποιθηκέναι τὸ σημεῖον.)
- (19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서로 말했습니다. (οἱ οὖν Φαρισαῖοι εἶπαν πρὸς ἑαυτούς)
아무 것도 소용이 없음을 주목해라 (θεωρεῖτε ὅτι οὐκ ὠφελεῖτε οὐδέν)
보라 온 세상이 그의 뒤를 향해 떠나가고 있다 (ἶδε ὁ κόσμος ὀπίσω αὐτοῦ ἀπῆλ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13 절을 읽으십시오. 베다니 한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안식일 저녁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로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중나갔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몇 안되는 에피소드 중의 하나입니다 (마 21:1~11, 막 11:1~11, 눅 19:29~38 참조). 하지만 각 복음서들은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모든 사건이 천편일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려는지를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 절에서 요한은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ὁ ὄχλος πολὺς ὁ ἐλθὼ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호 오크로스 폴루스 호 엘돈 에이스 텐 헤오르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토박이들이 아니라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일부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전쟁 (A.D. 66~70) 이전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2,700,000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D.A. Carson, p. 431 참조). 그리고 이같이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축제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팔아 교회를 돕게 된 것도 바로 이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부분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면,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거민들도 아니고 각 나라 족속 가운데 흩어져 살던 이들이 예수님을 마중나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마중나온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점은 다른 공관복음의 기록과 매우 다릅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지요.

“⁸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겹옷을 길에 찢으며 다른이느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띄고 ⁹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 21:8-9).

“⁸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찢으며 ⁹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¹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막 11:8-10)

“³⁷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³⁸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눅 19:37-38).

이처럼 다른 공관복음은 하나같이 이들이 누구인지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유월절 축제 기간에 참석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록만을 놓고 볼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당시 예수님을 환호한 군중들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찾아 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유월절 축제 참석 차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일부 헬라인들입니다. 이들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와 머물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 장 20 절에는 그 무리들 중에 헬라인도 일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의 구성은 이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세기 말 교회 공동체에는 예루살렘 토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으로 대변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 남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은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12 장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큰 무리”(12:9),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12:12), “축제 때 예배하러 온 사람 중 헬라인 몇명”(12:20) 들이라고 차례로 열거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무리들의 성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지요.

이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연호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ὡσαννά)란 헬라어로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자고, 그들을 다스릴 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요 18:33, 19:3, 19:19 참조)이라 부르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기 전의 나라 이름인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정치적 메시야로 환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들

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인 초대 교회 공동체에는 이들의 외침이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극심한 핍박을 견디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자신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의 영광스런 모습을 상상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들도 현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이웃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간절함을 담아 우리는 오늘도 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외침이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아!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이튿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축제에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ὁ ὄχλος πολὺς ὁ ἐλθὼ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ἀκούσαντες ὅτι ἔρχετα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ἔλαβον τὰ βράβια τῶν φοινίκων)
그를 맞기 위해 나가 외쳤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ον εἰς ὑπάντησιν αὐτῷ καὶ ἐκραύγαζον·)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ὡσαννά· εὐλογημένος ὁ ἐρχόμενος ἐν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καὶ] ὁ βασιλεὺς τοῦ Ἰσραήλ.)
- (14절)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εὐρών δὲ ὁ Ἰησοῦς ὄναριον ἐκάθισεν ἐπ' αὐτ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καθὼς ἐστὶν γεγραμμένον·)
- (15절)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아 (μὴ φοβοῦ, θυγάτηρ Σιών·)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ἰδοὺ ὁ βασιλεὺς σου ἔρχεται·)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καθήμενος ἐπὶ πῶλον ὄνου·)
- (16절) 처음에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ταῦτα οὐκ ἔγνωσαν αὐτοῦ οἱ μαθηταὶ τὸ πρῶτον·)
그러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 (ἀλλ' ὅτε ἐδοξάσθη Ἰησοῦς τότε)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ἐμνήσθησαν)
이러한 것들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ὅτι ταῦτα ἦν ἐπ' αὐτῷ γεγραμμένα)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한 것들을 (καὶ ταῦτα ἐποίησαν αὐτῷ·)
- (17절)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증거했습니다 (ἐμαρτύρει οὖν ὁ ὄχλος·)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ὁ ὢν μετ' αὐτοῦ ὅτε τὸν Λάζαρον ἐφώνησε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καὶ ἤγειρεν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 (18절) 군중들이 그를 마중나온 것은 그들이 그 이적을 행하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καί]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ὁ ὄχλος, ὅτι ἤκουσαν τοῦτο αὐτὸν πεποιηκέναι τὸ σημεῖον.)
- (19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서로 말했습니다 (οἱ οὖν Φαρισαῖοι εἶπαν πρὸς ἑαυτούς)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주목해라 (θεωρεῖτε ὅτι οὐκ ὠφελεῖτε οὐδέν·)
보라 온 세상이 그의 뒤를 향해 떠나가고 있다 (ἴδε ὁ κόσμος ὀπίσω αὐτοῦ ἀπῆλθ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공관복음은 이 나귀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요한은 그 과정 모두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연호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신 그 일을 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해석하면서 종종 생략하는 단어 ‘데’ (δε)를 생략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데’ (δε)라는 단어는 ‘그러나’ 또는 ‘그리고’ 둘 중 하나로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그리고’라는 병렬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당나귀를 발견하고 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그러나’로 번역하면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9 절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9장9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슌 9:9).

억눌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죽음을 이기는 것인데 그것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되살아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은 몸을 다시 살릴 때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며 그것이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귀에서조차 내려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어색한 광경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군중들의 극명히 대조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예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자신들도 살리실 것이라 믿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눅 19:41). 이제 5 일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훼파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아시는 예수님의 눈에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잠시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나 찾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도리나 찾는다면 우리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과 호산나를 부르며 왕을 연호하는 군중들의 상반된 모습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과 그 군중들에게 닥칠 운명과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아! 보라 어린 나귀위에 앉으셔서 너의 왕이 오신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문에 쓰여있는 “크게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를 “두려워 말라”라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사자 밥으로 던져질지, 언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것처럼 힘으로서 그들을 제압하는 대신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라는 역설적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그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만큼 역설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죽음에까지 낮아졌을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힘센 말과 병거를 몰고 입성하시지 않고 약하디 약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위안이 되지 않나요? 만약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칩니다. 병이 걸리면 낫게 해주고 수렁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과도가 치면 과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며 묵묵히 우리와 이 세상 나그네길을 함께 걷고 계신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잠깐이면 사시질이 땅에서의 고난도 참고 견딜만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믿는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⁴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⁵매 맞음과 간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⁶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⁷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⁸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⁹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¹⁰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3-10).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삶이 당신을 속이는 것 같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때론 하나님이 나만 못살게 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온갖 근심으로 인해 무거워진 짐을 내려 놓치 못해 힘들어하고 홀로 내동댕이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 조용히 당신 곁에서 약하다 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당신과 보조를 맞추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아!” “두려워 말라 시온의 아들아!” 당신은 지금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